제주도방언의 어로 활동 관련 어휘 연구*
-어로 도구와 어로 행위를 대상으로

김순자**

Ⅰ. 서론
Ⅱ. 어로 도구 관련 어휘
Ⅲ. 어로 행위 관련 어휘
Ⅳ.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제주 지역에서 어부들이 고기잡이할 때 사용하는 어로 도구(배, 낚시, 낚싯줄, 그물)와 어로 행위와 관련한 어휘를 어휘 의미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논의를 위해 제주시 이호동, 한림읍 비양리, 우도면 오봉리, 대정읍 가파리, 구좌읍 하도리 등 제주 지역 5개 마을에서 8명의 제보자에게 1년 동안의 어로 활동과 관련한 어로 도구와 어로 행위를 채록한 후, 관련 어휘를 범주화하여 고찰하였다.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고기잡이할 때 사용하는 배는 풍선, '걸리젱이', '테우', '노젓는베', '뗀마(전마)', '동력선' 등이 있었다. 이들 배들은 어종, 어로 방법에 따라 배 명칭이 다양하게 분화해 나타난다. 어종에 따라서는 '자릿베, 멜베, 갈칫베, 고등엇베,

* 이 글은 2015년 10월 30일 탐라문화연구원이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인문주간 행사 '섬과 바다의 인문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원고를 꼼꼼히 읽어준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 제주대학교 시간강사

옥돔바리' 등이 조사되었고, 어로 방법에 따른 배 이름은 '요수바랏베', '구물베', '권작선', '나끔바릿베', '덤장베', '주낙베', '불베' 등을 확인하였다.

둘째, 낚시 관련 어휘로는 '낙시/낙수', '주낙/주낫', '줄낙시', '마삭/섬비', '건장/건장낙시', '삼봉낙시' 등을 고찰하였다. '낙수/낙시'도 어종, 재료, 어로 방법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고 있다.

셋째, 낚싯줄도 어종, 재료, 어로 방법에 따라 어휘가 분화하고 있었다.

넷째, 그물과 관련해서는 '웨접', '이접', '삼접' 그물로 나눈 후에 어종, 모양, 어로 방법, 기타로 나눠 그물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번 연구를 통해서 '갈치마삭', '갈치섬비', '초석단베', '맞재비', '도리산돌', '그물막' 등과 같은 전통 어로 활동에서 사용했던 도구 관련 특이한 어휘를 새롭게 학계에 보고할 수 있었다.

여섯째, 어로 도구와 어로 활동 관련 어휘 가운데는 일본어를 차용한 어휘가 많았다. '옥돔바리', '뜸바리', '무루바리' 등의 '바리'는 일본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다.

일곱째, 어로 행위와 어로 방법 관련 어휘 가운데 어종에 따라서 서술어 결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갈치는 '나끄다', 고등어는 '걸리다', 오징어는 '부찌다/부치다', '멜'은 '후리다', 자리와 '멜'은 '거리다'처럼 어종에 따라 연어 관계를 이룬다.

주제어 : 제주도방언, 배, 낚시, 그물, 어로 도구, 어로 방법

Ⅰ. 서론

이 글은 국어학적 관점에서 제주바다에서 어부들이 어로 활동 때 이용했던 도구 명칭과 어로 행위와 관련한 어휘가 어떻게 분화하고, 그 분화된 어휘들의 의미를 어휘 의미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는 어장이 풍부하여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다. 풍부한 어장과 다양한 어종으로 인하여 제주 사람들은 어로 기술을 다각도로 발전시키며 독특한 어휘를 만들어 썼다. 그러나 생활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어로 관련 어휘도 사라질 위

기에 놓여 있다. 소멸 위기의 어로 관련 어휘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국어학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언어문화 유산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라져가는 어로 관련 어휘를 복원해 다음 세대로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고기잡이는 주로 어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낚싯대를 이용하여 갯바위에서 고기잡이도 하지만 대부분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낚시나 그물을 드리워 고기를 잡는다. 고기잡이 도구는 어종과 서식지, 습성 등에 따라 그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진다. 또한 어획 방법도 어종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어로 도구와 어로 행위와 관련하여 독특한 어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동안 어로 관련 도구와 행위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었을 뿐 국어학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제주의 어로 도구 자료는 조선총독부농공상부에서 발간한 『한국수산지』에 보인다. 이 자료집에는 제주군(제18절), 대정군(제19절), 정의군(제20절) 당시 행정구역별로 3개로 나누어 어촌마을별 수산물, 낚시와 그물, 어장 등을 소개하고 있다.

개별 조사와 연구는 김영돈 고광민 김순자 등이 있다. 김영돈은 『제주의 해녀』와 『한국의 해녀』에서 어로 관련 어휘를 다룬 바 있고, 고광민(1985)은 '제주도민구(Ⅱ)-제주도의 떼배와 그 어로행위들(1985)'과 『제주의 민속』(1994)의 '어로 기술'을 통해 제주의 어로 도구와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고광민(2002, 2004, 2016)에서도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을 민속학적인 고찰한 바 있다. 김순자(2007, 2009, 2010, 2011, 2012, 2015)는 국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 어촌생활어 조사'(2010~2013) 사업[1] 등을 통하여 어로 활동 관련 어휘를 조사, 보고한 바 있고, 강영봉(2011)은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 사업을 통해 가파도의 어로 활동을 보고하였다.

논의 자료는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2]와 '민족 생활어 조사', 제주

---

1) 국립국어원 어촌생활어 조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전국 89개 어촌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2)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제주인의 삶과 도구' 조사[3] 사업을 하면서 채록한 어휘에 한정하였다. 조사 지점인 제주시 이호2동,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우도면 오봉리, 대정읍 가파리, 구좌읍 하도리 등 5개 마을은 전형적인 해안마을[4]로, 제보자들은 모두 반농반어 생활을 하였다.

<표 1>은 제보자 정보다.[5]

〈표 1〉 조사 정보

연번	조사 연도	제보자	나이[6]	성별	조사 지점
1	2007	이보연	78	남	제주시 이호2동
2	2010	장영상	71	남	한림읍 비양리
3		차철의	77	남	
4		강영철	57	남	
5		강영례	67	여	
6	2011	강이근	69	남	우도면 오봉리
7	2011	라여옥	72	남	대정읍가파리
8	2015	손성추	72	남	구좌읍 하도리

조사는 민족지학적 방법으로 제보자들의 1년 동안의 어로 활동을 구술 채록한 후 전사하여 어로 도구와 어로 행위 관련 어휘를 고찰하였다. 어로 도구는 배, 낚시, 낚싯줄, 그물 등 4개 범주로 나눈 후에, 다시 4개

---

3) '제주인의 삶과 도구' 조사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201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제주시 이호2동은 제주시 서쪽에 위치한 해안마을이고, 한림읍 비양리는 제주 서북 지역, 우도면 오봉리는 제주 동북 지역, 대정읍 가파리는 제주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도서 지역이다. 구좌읍 하도리는 제주 동부 지역에 위치한 해안 마을이다.

5) 제보자 이보연은 어렸을 때부터 배 목수를 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평생을 멸치잡이, 자리돔잡이, 오징어잡이, 갈치잡이 등을 하였다. 전통 어로 도구인 '풍선'과 '떼베'를 이용한 고기잡이 경험이 풍부하였다. 비양리 장영상은 조사 당시 부인 강영례와 함께 옥돔잡이를 하고 있었고, 차철의는 평생 고기잡이를 하였다. 조사 당시는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는 아들을 도와 그물 손질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강영철은 덤장을 운영하는 등 고기잡이를 전업으로 하고 있었다. 가파리 라여옥은 배 목수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풍선 등을 이용한 고기잡이 경험이 풍부하였고, 오봉리 강이근은 우도에서 마지막까지 '저립 잡이'를 했던 어부다. 하도리 손성추는 후리그물과 전통 어로방식인 '갯담'에서 '맞재비'를 이용해 멸치잡이를 했었다.

6) 제보자 나이는 조사 당시 기준이다.

의 범주를 어종, 어로 방법, 재료, 모양 등으로 하위 분류하였다. 어로 행위는 낚시와 그물 관련 어휘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해석은 『표준국어대사전』 등의 국어사전류와 선행 연구 자료, 그리고 제보자들의 인상적인 설명을 참고하였다. 필요한 경우는 형태소 분석도 하였다. 이 외에도 관련 어휘의 국어사전 등재 여부와 해석의 적정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사전 발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어로 도구 관련 어휘

1. 배

배는 고기잡이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도구 가운데 하나다. 배는 어부들이 어장으로 나가 고기잡이를 하거나 어획물을 운반할 때 사용한다. 전래 방식으로 어로 활동을 할 때 사용했던 배는 '풍선'과 '떼배', '걸리젱이'다. '풍선'은 먼바다를 왕래할 때 이용하였고, '떼배'는 연근해에서 고기잡이를 할 때 사용하였다.[7] 요즘은 '풍선' 대신에 동력선을 이용하여 고기잡이를 한다. 고기잡이할 때 사용하는 배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풍선/범선/돗단베/초석단베/초석베

'풍선'은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를 말한다. '풍선'의 방언형은 '풍선', '범선', '돗단배', '초석단베', '초석베' 형으로 나타난다.

(1) ㄱ. **옛날은 고기잡을 때 범선. 돗 돌아가지고 노로 젓고 동력이 아니고 범선이라고(옛날은 고기잡을 때 범선, 돛 달아가지고 노로 젓고 동력이 아니고 범선이라고)<이보연>**

---

7) 고광민,『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140.** 여기에서 고광민은 『제주도세요람』**(1937,** 전라남도 제주도청**)**을 참고하여 **1937**년 제주도에는 통나무배 **533**척, 제주식 풍선 **552**척, 일본식 풍선 **845**척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식 풍선은 덕판배, 통나무 여럿을 연결하는 배는 '떼배·테위·테·터우·테우'라고 소개하고 있다.

ㄴ. 브름 풍께, 바로 베 선께 헤갖고 풍선.(바람 풍자, 바로 배 선자 해가지고 풍선.)<이보연>

ㄷ. 광목으로 맨든 거지만 이름이 초석이주. 초석이렌 허믄 돗자리가 아니고 광목으로 만드는디 돗이엔도 허곡 초석엔도. 돗단베 허곡 초석단베.(광목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름이 돛이지. '초석'이라고 하면 돗자리가 아니고 광목으로 만드는데 돛이라고도 하고 '초석'이라고도. 돛단배 하고 '초석단배'.)<이보연>

ㄹ. 엿날은 초석베로, 돈 언만 줘사게.(옛날은 돛배로, 돈 얼마 줬냐.)<차철의>

예문 (1ㄱ, ㄴ)의 '풍선'과 '범선'은 표준어형이 방언형으로 나타난 경우다. '범선(帆船)'은 돛을 단 배라는 의미의 한자어 명칭이고, '풍선(風船)'은 '바람을 이용하는 배'여서 붙은 이름이다. 방언형으로는 '돗단베'와 '초석단베', '초석베'가 조사되었다. '돗단베'와 '초석단베'는 '돗달다'의 관형사형 '돗단-'과 '초석단-'에 '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돛을 단 배라는 의미다. '돗'과 '초석', '범(帆)'은 '돛'의 의미고, '풍선'의 '풍(風)'은 '바람을 이용한'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다. '초석'은 '야오초석', '허리초석'으로 나뉜다.

(2) 야오초석 허리초석. 야오엔 헌 것이 그걸 원 모르겟어. 우린 야오엔만 허니까. 야옷대, 야오초석.('야오돛' 허리돛. '야오'라고 한 것이 그걸 전혀 모르겠어. 우리는 '야오'라고만 하니까. '야옷대', '야오돛'.)<이보연>

앞의 예문 (1, ㄷ)에서 제보자는 '초석'은 "돗자리가 아니고 광목으로 만드는디"라고 했지만, 예전에는 초석을 이용하여 '돛'을 다는 경우도 있어, 여기에서 '초석'은 '초석을 이용해서 달았던 돛'이라는 뜻에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 '돛'의 의미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예문 (2)의 '야오초석'은 이물 쪽에 다는 '이물돛'의 방언형이며, '허리초석'은 배의 고물 쪽에 다는 '허리돛'의 방언형이다. 달리 '고물돛'이라고도 한다. '야오'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다. '야오초석'과 '허리초석' 모두 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는 어휘다. '이물돛'은 『조선말 대사전』과 『우리말 큰사전』에는 올림말로 올라 있지만, 『표준』에는 올라 있지 않다. '고물돛'은 『

조선말 대사전』에만 올림말로 올라 있는데, '고물대'와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고물돛'은 '이물돛'에 상대한 어휘이기 때문에 사전의 뜻풀이는 '고물에 다는 돛'으로 수정하는 게 온당해 보인다.

② 걸리젱이

'걸리젱이'는 돛이 없는 작은 배를 말한다. 표준어 '거룻배'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3) 족은 베엔 허연에 이제 걸리젱이.(작은 배라고 해서 이제 거룻배)<강영례>

③ 테우

'테우'는 뗏목처럼 통나무를 엮어서 만든 전통배다. 표준어 '떼배'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조사 지점에 따라서 '테우', '터위', '떼', '뗏베'라고 한다.

(4) ㄱ. 테우는 스월에 조립허곡 구월돌에 해체허곡.(떼배는 사월에 조립하고 구월달에 해체하고)<이보연>
ㄴ. 겐디 비양돈 뗏베 엇어낫저.(그런데 비양도는 '떼배' 없었었다)<차철의>

예문 (4 ㄱ)을 보면, '테우'는 사월에 조립해서 사용하다가 구월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통나무를 해체해 두었다. '테우'는 주로 한라산에 자생하는 구상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구상나무가 고갈되면서는 삼나무로 대체해 만들었다. '테우'는 주로 자리돔 잡이와 듬북 채취에 이용하였다. 예문 (4 ㄴ)에서 보듯이 바다 지형에 따라서 '테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였다.

④ 노젓는베

'노젓는베'는 노를 젓는 배라는 의미다. 이와 상대해서 기계의 힘을 빌려 움직이는 배를 '기계선'이라고 한다.

(5) 옛날에는 전부 노젓는베. 비양돈 기계선이 벨로 없었어.(옛날에는 전부 노

젓는배. 비양도는 기계선이 별로 없었어.)<장영상>

⑤ 뗀마

'뗀마'는 '전마선'[8]에 해당하는 일본어 '뗀마(てんま)'이다.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다.

(6) ㄱ. 엿날에는 뗀마 탕 요 앞에 나가면은 뽕돌에다가 낙시 메여가지고 갈치 나끄듯이 아무 궤기라도 썰엉은에 바다 속에 들이치민 우럭 북바리 그런 게 많이 물어십주.(옛날에는 전마 타서 요 앞에 나가면 봉돌에다가 낚시 매어가지고 갈치 낚듯이 아무 고기라도 썰어서 바다 속에 집어넣으면 우럭 붉바리 그런 게 많이 물었습죠.)<라여옥>
ㄴ. 뗀마 그거 큰 베 또꼬냥에 창 뗀마엔 허주기.(전마 그거 큰 배 꽁무니에 차서 전마라고 하지.)<차철의>

예문 (6 ㄱ, ㄴ)을 보면, '뗀마'는 바닷가에서 낚시 작업을 하거나 "큰 베 또꼬냥에 창(큰 배 꽁무니에 차서)"이라는 구술에서 보듯이, 큰 배를 따라 다니면서 보조 역할을 하는 배를 말한다.

⑥ 동력선, 발동선, 모다배, 기계선

'동력선'은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배를 말한다.

(7) ㄱ. 표준말로 범선허주마는 풍선이엔 허여. 지금은 동력선으로.(표준말로 범선하지만 풍선이라고 해. 지금은 동력선으로.)<이보연>
ㄴ. 자리돔도 역시 발동선으로 헤여가지고(자리돔도 역시 발동선으로 해가지고.)<라여옥>)
ㄷ. 모다베 하나 헤연 허단 이젠 대성호 헤연.(모터배 하나 해서 하다가 이젠 대성호 해서.)<차철의>

앞의 예문 (5)와 (7)을 보면, '동력선'은 제보자와 지역에 따라서 '발동선', '기계선', '모다베'로 나타난다. '발동선'은 발동기로 운용되는 배

8) '전마선'은 '큰 배와 육지 또는 배와 배 사이의 연락을 맡아 하는 작은 배.'를 말한다.

이고, '모다베'의 모다는 영어 '모터'를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발동기'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배의 명칭은 어종과 방법에 따라 다시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1) 어종에 따른 명칭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 사용하는 배는 보통 '고깃배/궤깃베'라고 한다. 이들 고깃배도 어종에 따라 배 이름이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자리돔을 잡을 때 사용하면 '자릿베', 멸치잡이에 이용하면 '멜베'라고 한다.

① 자릿베/자리뜨는베

'자릿베'는 자리돔 잡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배다. '자리+ㅅ+베' 구성으로, 어종을 앞세운 배 명칭이다.

(8) 베 일름은 뗸마 요수바릿베 멜베. 거 자리뜨는베가 멜 헐 때 또 멜베도 뒈곡.(배 이름은 전마 '요수바릿배 멸칫배. 거 자리 뜨는 배가 멸치 할 때 또 멸칫배도 되고)<라여옥>

예문 (8)을 보면, '자릿베'는 달리 '자리뜨는베'라고도 한다. 자리를 뜰 때 사용하는 배여서 붙은 명칭이다. '자리뜨는베'는 주로 그물을 이용하여 자리돔을 잡을 때 사용한다.

② 멜베

예문 (8)에서 보듯, '멜베[멜뻬]'는 '멜+베' 구성으로, 멸치잡이를 할 때 사용하는 배이다. '멜'은 '멸치'의 방언형이다.

③ 갈칫베/갈치나끄는베

'갈칫베'는 갈치를 낚을 때 사용하는 배 이름이다.

(9) 갈치나끄는베덜 뭐 삼 억까지 가는 베가 싯젠 헌디. 갈칫베가.('갈치낚는 배'들 뭐 삼 억까지 가는 배가 있다고 하는데.)<차철의>

예문 (9)를 보면, '갈칫배'는 '갈치나끄는베'로도 실현된다. 갈치를 낚을 때 사용하는 배라는 의미다.

④ 고등엇베

'고등엇베'는 주로 고등어를 잡는 배를 말한다.

⑤ 옥돔바리

'옥돔바리'는 '옥돔+바리' 구성으로, '바리'는 일본어 'はる'의 명사형 'はり'가 '옥돔'에 연결되면서 '바리(ばり)'로 실현된 것이다. 여기에서 '옥돔바리'는 '옥돔잡이를 주로 하는 배'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2) 어로 방법에 따른 명칭

① 요수바릿베

예문 (8)의 '요수바릿베'는 가파도에서 '요수바리'라는 그물을 이용하여 발동선으로 자리돔을 잡을 때 사용하는 배 이름이다.[9] '요수바리'는 '요쯔(よつ)'+'바리(ばり)' 구성으로, 배를 이용하여 자리돔을 뜰 때 발동선과 두 대의 '뗀마' 양쪽에 줄을 매어 바다에 깔고 올리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물로, 가파도 지역에서 고안한 '자릿그물'이다.

② 구물베/구물당선/당선

'구물베'는 그물을 싣고 다니는 배를 말한다. 달리 '구물당선' 또는 '당선'이라고 하는데 멸치 후리에 이용하는 배 명칭이다. 한자어로는 '당망(搶網)' 또는 '위망(圍網)'이라고 한다.

③ 권작선/께작선

'권작선/께작선'은 고깃배의 한 종류다. '께작선'은 '권작선'의 이형태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

9) 제보자 라여옥에 의하면 '요수바릿베'는 해방 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④ 대구리베/고대구릿베

'대구리베'는 수심 깊은 데 가서 옥돔과 조기 따위를 잡는 배를 말한다. '대구리'는 일본어 'てぐり(手繰り)'로, '예인망(曳引網)'을 이용해 고기잡이를 하는 배이다. '고대구릿베'는 '고대구리+ㅅ+베' 구성으로, 수심 깊은 데 그물을 친 후 그물을 끌어가면서 고기를 잡는 배를 말한다. '고대구리(ごてぐり)'는 코가 작은 그물을 말한다.

⑤ 나끔바리베/낙싯베

'나끔바리베/낙싯베'는 바다에 나가 낚시를 이용하여 고기잡이할 때 사용하는 배이다. '나끔바리+베' 구성으로, '나끔바리'는 낚시질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방식을 말한다. '옥돔바리'와 달리 '베'가 더 결합해서 이루어진 어휘다.

⑥ 덤장베

'덤장베'는 덤장[10]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배다.

(10) 갈치나끄는베 오라가믄 아이고 저 갈치나끄는베 왐쩌. 덤장베 왐쩌.(갈치낚는배 와가면 아이고 저 갈치낚는배 온다. 덤장배 온다.)<강영철>

⑦ 주낫베

'주낫베'는 주낙을 이용하여 고기잡이할 때 사용하는 배다. '주낫'은 '주낙'의 방언형이다.

⑧ 불베

'불베'는 '불+베' 구성으로, 불을 밝힌 배를 말한다. 불베'는 멸치 등 불빛을 따르는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조명장치를 특별히 갖춘 배로써, 주로 야간에 불을 켜서 어로 작업을 한다. 표준어 '불배'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

10) '덤장'은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막대를 박아 그물을 울타리처럼 쳐 두고 물고기를 그 안으로 몰아넣어 잡는 그물을 말한다.

(11) 불베가 다니면서 잡아부니까 멜이 안 들어오는데.(불배가 다니면서 잡아 버리니까 멸치가 안 들어오는데.)<손성추>

2. 낚시

낚시는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다. 방언형으로는 '낙시'와 '낙수'가 나타난다. 낚시도 종류에 따라 '낙시/낙수', '주낙/주낫, 주낙시', '줄낙시', '마삭/섬비', '건장/건장낙시', '삼봉낙시' 등으로 분화한다.

① 낙시/낙수

'낙시/낙수'는 표준어 '낚시'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낙시/낙수'는 흔히 끝이 뾰족하고 꼬부라져 있다. 낚싯줄에 낚시를 매달아 사용하는 줄낚시와 낚싯대에 낚싯줄을 매달고 사용하는 대낚시로 나눈다. '낙시/낙수'도 쓰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12) 셍성 뭐 가믄 혼 이십 머리, 삼십 머리썩 그 당시 나깟주. 낙시나 주낙이나.(옥돔 뭐 가면 한 이십 마리, 삼십 마리씩 그 당시 낚았지. 낚시나 주낙이나.)<이보연>

② 주낙/주낫, 주낙시

'주낙/주낫'은 '주낙'의 방언형으로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도구'다. 한 상자 안에 사려 놓았다가 사용한다. '주낙시'는 '줄+낙시' 구성으로, 줄의 'ㄹ'이 탈락한 어형으로, 주낙에 사용하는 낚시를 말한다.

(13) 이건 주낙시렌 헤서 갈치 지금은 이걸로 나까.(이것은 주낙이라고 해서 갈치 지금은 이것으로 낚아.)<이보연>

③ 줄낙시

'줄낙시'는 낚싯줄에 낚시를 매달아 손으로 줄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

서 낚는 낚시를 말한다. '줄+낙시' 구성으로, 줄에 매단 낚시라는 의미다. 방어를 낚을 때 '줄낙시'를 이용한다. 위 ②의 '주낙시'가 주낙 아리에 매단 낚시라면, 여기에서의 '줄낙시'는 낚싯줄 하나(원줄)에 아리를 매달아 연결한 낚시라는 의미다. **'ㄹ'** 탈락 여부로 그 의미가 분화하고 있다.

(14) 보통은 뗀마 탕 강은에 줄로 헤서 나꼽니다. 줄낙시 허영 어렝이 그런 것도 나끄곡. 볼락 ᄀᆞ뜬 건 첨대 헤가지고 대나무 한 세 발 뒌 거 그런 거 헤여 가지고 멘셋줄 가는 거에다가 피 멕영 것도 솖아가지고 치면 꺼멍케 뒈고 이제 뺏뺏허니까 그걸로 허영 볼락 ᄀᆞ뜬 거는 그 줄에다가 그냥 대구수 아리.(보통은 전마 타고 가서 줄로 해서 낚습니다. 줄낚시 해서 어렝놀레기 그런 것도 낚고 볼락 같은 것은 낚싯대 해가지고 대나무 한 세 발 된 거 그런 것 해가지고 면사줄 가는 것에다가 피 먹여서 삶아가지고 찌면 거멓게 되고 이제 뺏뺏하니까 그것으로 해서 볼락 같은 것은 그 줄에다가 그냥 '대구수' 아리.)<라여옥>

예문 **(14)**를 보면, '줄낙시'의 낚싯줄은 예전에는 면사에 돼지피를 넣어 삶아서 사용하다가 요즘은 '대구수'를 이용하고 있다. '낚시 아리'는 수지의 일종인 '대구수'를 이용하였다. '줄낙시'는 '외줄 낚싯줄에 낚시를 매달아 낚시질하는 것'을 말하는데, 표준어 어형과 같다. '줄낙시'는 낚싯대를 이용해서 낚시질을 하는 '대낙시'에 상대하여 이르는 명칭이다.

④ 마삭/섬비

'마삭'과 '섬비'는 낚시의 일종이다. '마삭'은 주로 갈치를 낚을 때 이용한다고 해서 '갈치마삭'이라고 부른다. '마삭'이라는 이름 대신 '갈치섬비'라는 명칭도 조사되었다. '마삭/갈치마삭'은 제주시 이호2동과 비양도에서, '섬비/갈치섬비'는 서귀포시 가파도에서 조사되었다. 갈치낚시가 마치 끙게처럼 생겼다는 데서 붙은 명칭이다. '섬비'는 '끙게'의 방언형이다.

⑤ 건장/건장낙시

'건장'은 여러 개의 낚시를 대나무나 낚싯줄에 연결해 만든 도구다.

낚싯바늘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고기가 걸릴 수 있게 만들었다. 갈고리낚시[11]의 한 종류다.

(15) ㄱ. 옛날 고등어 걸려. 막 영 둥이믄 그냥 탕탕 걸어져. 건장이고 고등에 건장. 뽕돌 메여 놩 나끄기도 허주마는 건장으로 걸리는 게 만핫주. (옛날 고등어 걸려. 막 이렇게 당기면 그냥 탕탕 걸어져. '건장'이고 '고등어건장'. 봉돌 매어 놔서 낚기도 하지만 '건장'으로 걸리는 것이 많았지.)<차철의>

ㄴ. 고등어낙수는 낙수가 영허곡 영허곡 영헤근에 네 개 뒈게꾸리 헤영 고냥 똘라진 디 그 줄 메영, 줄 메는디 하나 둘 세 개 네 개꺼지 메영 수심 줘긴에 푸끄문 이제 고등어 물믄 둥경 떼여가민 아래 것도 걸령 올라오민 들구 떼영 놓는 거라. 낙수로 푸끄믄 올라오곡 고등어건장낙시라고(고등어낚시는 낚시가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해서 네 개 되게끔 해서 구멍 뚫어진 데 그 줄 매서. 줄 매는데 하나 둘 세 개 네 개까지 매서 수심 줘서 집어넣어다 꺼냈다 하면 이제 고등어 물면 당겨서 떼어가면 아래 것도 걸려서 올라오면 마구 떼어서 놓는 거야. 낚시로 '푸끄면' 올라오고 고등어 건장낚시라고)<차철의>

예문 (15 ㄱ)은 '건장'의 사용 방법을 보여 주고, 예문 (15 ㄴ)은 '건장'의 모양을 구술하고 있다. 예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전에 고등어 잡을 때는 낚시나 그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건장'을 이용하여 '걸려서' 잡았다. 고등어를 잡을 때 쓰는 낚시는 '건장' 또는 '고등에건장'이라고 한다. 고광민(2004)은 문어나 낙지, 해삼 따위를 잡을 때도 건장을 이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문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는 '뭉게 거낫', 해삼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는 '해삼 거낫(건장)', 낙지를 잡을 때는 '낙지 거낫'을 사용한다고 한다.[12]

---

11) '갈고리낚시'는 겹낚시의 하나. 보통, 갈고리 세 개를 묶어서 만드는데 미늘이 없고 미끼를 꿰지 않는다.(『표준국어대사전』). 겹낚시는 낚싯바늘이 하나인 '홑낚시'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낚싯대 하나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단 낚시이다(『표준국어대사전』).

12) 고광민, 앞의 책, 2004, 170~173쪽. 고광민은 '건장'에 대응하는 표준어로 '거낫'이라고 하고 있지만, 필자는 '거낫'보다는 '갈고리낚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온당해 보인다. 고광민은 '거낫'을 "한 발 되는 대나무 가장자리에 다섯 개의 낚시를

⑥ 삼봉, 삼봉낙시

'삼봉낚시'는 '삼봉(三鋒)+낙시' 구성으로, 삼봉을 이룬 낚시를 말한다.[13]

(16) 오징어 헐 때는 삼봉낙시. 삼봉. 옛날에 저거 하나만 헤영 헤낫는디 이제는 불 쌍 거세기허는디 대여섯 개썩 메영 허여.(오징어 할 때는 삼봉낚시. 삼봉. 옛날에 저거 하나만 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불 켜서 거시기하는데 대여섯 개씩 매어서 해.)<이보연>

한편 '낙시/낚시'는 어종, 재료, 어로 방법에 따라 명칭이 분화해 나타난다.

(1) 어종에 따른 명칭

① 돔낙시/돔낙수, 갈치낙시/갈치낙수, 옥돔낙시, 고등에낙시, 벤자리낙시/낙수, 저립낙시

낚시는 어종에 따라서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따라서 어종에 따라 낚시 이름도 분화해 나타난다. '돔낙시/돔낙수'는 황돔을 잡을 때 사용하는 낚시이고, '갈치낙시/갈치낙수'는 '갈치를 낚을 때 이용하는 낚시'다. '옥돔낙시'는 '옥돔을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시'다. '고등에낙시'는 고등어를 낚을 때 쓰는 낚시이고, '벤자리낙시'는 벤자리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시다. '저립낙시'는 '저립(재방어)'을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시다.[14]

얽어매어 뭉게를 홀쳐 내는 어구"(170쪽)라고 풀이하고 있다.

13) 『표준』에는 '세 갈래의 갈고리가 달린 낚시. 강바닥에 가라앉혀 놓고 물고기가 지나가다 걸리게 한다.'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다. 삼봉낚시를 바다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강바닥에 가라앉혀 놓고'는 '강이나 바다에서 물속으로 가라앉혀 놓고' 정도로 뜻풀이를 수정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조사(2007, 2009) 때 '건장'을 '소경낚시'라고 풀이했으나, 낚시의 특징을 고려할 때 '갈고리낚시'로 풀이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아 여기서는 '갈고리낚시'로 수정하였다.

14) 낚시는 '촌'으로 크기를 표현하는데, '돔낙시'의 경우 '5~6촌' 크기를 쓴다.

② 셍성주낫, 돔주낫, 우럭주낫

'셍성주낫' '돔주낫', '우럭주낫'도 '어종+주낫' 구성의 어휘로, 어종에 따라 주낙 명칭이 분화한다.

(17) ㄱ. 이디서 셍선 끗나믄 이 철에 돔주낫(여기서 옥돔 끝나면 이 철에 돔주낙)<차철의>
ㄴ. 우럭주낫도 다니고(우럭주낙도 다니고)<장영상>

'셍성주낫'은 옥돔을 잡을 때 이용하는 주낙이다. '셍성'은 '옥돔', '주낫'은 '주낙'의 방언형이다. 예문 (17 ㄱ)의 '돔주낫'은 황돔을 잡을 때 사용하는 주낙, 예문 (18 ㄴ)의 '우럭주낫'은 우럭을 잡을 때 이용하는 주낙이다. 어종에 따라 주낙을 사용할 때 '어종명+주낫' 형식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때 '주낫'은 단순히 바닷물고기를 잡는 낚시 도구라는 기본 의미에서 '주낙으로 하는 고기잡이'라는 의미로 그 뜻이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③ 갈치마삭/갈치섬비

'갈치마삭'과 '갈치섬비'는 '어종명+마삭', '어종명+섬비' 구성의 어휘다. '갈치마삭'은 마삭, 아리, '뽕돌'을 매단 낚싯줄과 '귀도레기'로 이루어진다. '아리'에 매단 낚시는 '갈치낙시'라고 한다.

(18) ㄱ. 어구는 어족에 따라서 다 틀리지. 옛날 갈치헐 땐 갈치마삭. 마삭이라고 하고, 갈치는 갈치술, 갈치마삭, 뽕돌, 아리. 마삭이엔 헌 건 ᄃᆞ렛줄로 허엿고, 양쪽 끄트머리 가면 ᄀᆞ늘게 허곡 가운디 넙적허게시리. 귀ᄃᆞ레기허영 그 우틔레 술 메곡. 아리 허영 낙시 꿰곡.(어구는 어족에 따라서 다 달라. 옛날 갈치할 때는 '갈치마삭'. '마삭'이라고 하고, 갈치는 '갈치 낚싯줄', '갈치마삭', 봉돌, 아리. '마삭'이라고 한 것은 다래나무 줄로 했고 양쪽 끄트머리에 가면 가늘게 하고 가운데 넓적하게끔. 도르레해서 그 위로 줄 매고 아리 해서 낚시 꿰고)<이보연>
ㄴ. 갈치는 부껭도 나끄고, 부껭 나끄는 거는 갈치섬비. 이렇게 뽕돌 큰 거에다가 활대 이렇게 헤가지고 양끗데 대구수 한 발 정도 헤가지고 낙시 메어갖고 풍선 닷 줘근에 한 삼사십 메다 이런 수심 든 디 강

은에 부껑 나까십주.(갈치는 '부껑'도 낚고, '부껑' 낚는 것은 '갈치섬비'. 이렇게 봉돌 큰 것에다가 활대 이렇게 해서 양 끝에 '대구수' 한 발 정도 해가지고 낚시 매어가지고 풍선 닻 줘서 한 삼사십 미터 이런 수심 든 데 가서 '부껑' 낚았습죠.)<라여옥>

예문 (18ㄱ, ㄴ)을 보면 '갈치마삭'과 '갈치섬비'의 구조에 대해 알 수 있다. '갈치마삭'은 '마삭, 아리, 뽕돌, 귀도레기, 부끔술'로 구성되어 있다. '아리'와 '대구수'는 같은 의미로 쓰였다. '아리'는 표준어 '목줄'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예문 (18 ㄴ)을 보면, '대구수'는 '대구수로 만든 아리'라는 의미다. '대구수'는 수지의 일종으로 '낚싯줄'을 말한다. '아리'는 양쪽에 다리처럼 늘어뜨려서 낚시를 매다는 줄인데 길이가 한 발 정도 된다. '뽕돌'은 '봉돌'의 방언형이다. '귀도레기'는 낚싯줄에 매달린 바퀴로, 표준어 '도르레'에 해당하는 말이다. '활대'는 낚시를 매단 줄을 제외한 활 모양의 몸통으로, 이를 이호2동에서는 '마삭', 가파도에서는 '섬비'라고 부르고 있다.

(19) ㄱ. 활대는 갈치섬비엔 허영은에 저 대나무 이렇게 까까가지고 활댈 멘들앙 가운데다가 이제 뽕돌 돌아메영 부껑은에 양끗데 대구수줄로 헤가지고 이제 낙시 메여가지고 낙시 쪽에는 혼 뽐 정도 철사로. 갈치가 워낙 느슬아놓니까.('활대'는 '갈치섬비'라고 해서 저 대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활대를 만들어서 가운데다가 이제 봉돌 매달아서 '부껴서' 양 끝에 '대구수줄'로 해가지고 이제 낚시 매어가지고 낚시 쪽에는 한 뼘 정도 철사로. 갈치 이빨이 워낙 날카로워놓으니까.)<라여옥>삶

ㄴ. 셍성 잡는 마삭은 쒜로 만든 마삭 쓰곡, 갈치 나끌 때는 산에 가믄 윤노리낭 돈돈히 굳은 걸로. 옛날 갈치마삭허젠 허믄 그 돗국물에 윤노리를 [illegible]아.(옥돔 잡는 '마삭'은 쇠로 만든 '마삭' 쓰고, 낚시 낚을 때는 산에 가면 윤노리나무 단단히 굳은 것으로. 옛날 '갈치마삭'하려고 하면 그 돼지 삶은 물에 윤노리나무를 삶아서.)<차철의>

ㄷ. 대구수는 요즘 낙시 푸는 건디 호수가 한 이십호 되는 거. 아리엔도 허곡.('대구수'는 요즘 낚시 파는 것인데 호수가 한 이십호 되는 거. '아리'라고도 하고)<라여옥>

예문 (19 ㄱ~ㄷ)을 보면, '마삭'은 'ᄃᆞ렛줄(다래나무 줄기)'이나 대나무를 이용하여 만든다. 낚시가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중앙에 '부끔줄'을 매단다. '부끔줄'에는 '갈칫술'을 이용하여 1kg 정도의 '뽕돌'을 매다는데, 그 '부끔줄'을 잡아서 '부끄면서' 갈치를 낚는다. '낚싯줄'은 면실을 꼬아가지고 돼지피를 먹여 삶아서 사용하였다. 예문 (19 ㄴ)을 보면, '마삭'은 갈치 외에도 '셍성(옥돔)'을 잡을 때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옥돔을 잡는 '마삭'은 쇠로 만들었다.

④ 고등에건장

'고등에건장'은 '고등에+건장' 구성으로, 고등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건장이라는 의미다. '건장'은 '갈고리낚시'의 방언형이다. 앞의 예문 (16 ㄱ)의 '막 ᄃᆞᆼ이믄 그냥 탕탕 걸어져'에서 보듯이 고기들이 낚시에 걸어지는 것으로 보아, 건장은 갈고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재료에 따른 명칭

① 멘세주낫/멘주낫, 수지주낫

'멘세주낫'은 '멘세(면사)+주낫' 구성으로 면사로 된 주낙이다. 달리 '멘주낫'이라고도 한다. '수지주낫'은 수지로 만든 주낙을 말한다.

(20) 멘세주낫보고 무듬바리. 또 수지주낫은 뜸바리.(면사주낙보고 '무듬바리'. 또 수지주낙은 '뜸바리')<차철의>

예문 (20)의 '멘세주낫'의 '멘세'는 '면사(綿絲)'의 방언형이다. '수지주낫'은 '수지'에 '주낫'이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다.

② 윤노리마삭

'윤노리마삭'은 윤노리나무로 만든 마삭을 말한다. '마삭'은 낚시의 일종이다. 예문 (19 ㄴ)을 보면, '윤노리마삭'은 돼지고기 삶은 물에 서너 번만 삶으면 꺾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3) 어로 방법에 따른 명칭

① 무듬바리, 땅바리, 경심주낫

'무듬바리'는 '묻+음+바리(ばり)' 구성으로, 낚시를 땅에 (묻어) 고정시켜서 옥돔을 잡는 주낙을 말한다. '바리'는 일본어 'はる'의 명사형 'はり'가 '무듬'에 연결되면서 '바리(ばり)'로 실현된 것이다. '땅바리'는 '땅+바리' 구성으로, 낚싯줄을 물속에 떨어뜨렸을 때 한 장소에서 고기가 물게 된 주낙이다. '경심주낫'은 '무듬바리'와 '땅바리'와 같은 의미로 쓰인 어휘이다.

(21) ㄱ. 옛날은이 주낫 이제 영 궤기 허믄 영 ᄀᆞ라앚는 건 무듬바리. 주낫 무듬바리. 그 멘세주낫보고 무듬바리. 무듬바리는 딱 가면은 ᄀᆞ만이 잇고, 뜸바리는 흘러가면서 고기 물게 된 거주기.(옛날은 주낙 이제 이렇게 고기 하면 이렇게 가라앉는 것은 '무듬바리'. 주낙 '무듬바리'. 그 면사주낙보고 '무듬바리'. '무듬바리'는 딱 가면 가만히 있고, '뜸바리'는 흘러가면서 고기 물게 된 것이지.)<차철의>

ㄴ. 옛날 '땅바리', '경심주낫'. 땅에 깔아앚이니까 '땅발이'.(옛날 '땅바리'. '경심주낙'. 땅에 갈아앉으니까 '땅발이'.)<강영례>

② 뜸바리

'뜸바리'는 '뜨-+음+바리' 구성으로, 예문 (21 ㄱ)에서 보듯이 낚시를 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고 떠다니게 해서 옥돔을 잡는 주낙이다.

(22) 수지주낫은 뜸바리. 뜸바리로 요새 셍선덜 잡암시녜게. 뜸바린 중간 중간 버국 잇으니까 니껍만 땅 아래 영 헤가지고 ᄎᆞᄎᆞᄎᆞᄎᆞ 흘려가게 뒈엇어.('수지주낙'은 '뜸바리'. '뜸바리'로 요새 옥돔들 잡고 있잖니. '뜸바리'는 중간 중간 스티로폼 있느니까 미끼만 땅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차차차차 흘려가게 되었어.)<차철의>

'뜸바리'는 앞의 예문 (21 ㄱ)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듬바리'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어휘다.

3. 낚싯줄

낚싯줄은 낚싯대에 낚싯바늘을 매어 달기 위하여 쓰는 가늘고 질긴 끈을 말한다.

(23) ㄱ. 베임제 하르방이 고기술 줘서 셍성 하나 물엉 오믄 닷 주고(배임자 할아버지가 낚싯줄 줘서 옥돔 물어서 오면 닷 주고)<차철의>
ㄴ. 저립 나끌 때 알목 엇이믄 원술이 꼬아정 못쓰주게.(재방어 낚을 때 '알목' 없으면 원줄이 꼬여서 못 쓰지.)<강이근>

예문 (23 ㄱ)을 보면, 낚싯줄의 방언형으로 '고기술'이 나타난다. '고기술'은 '궤기술'로도 실현된다. '고기술/궤기술'은 '고기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싯줄'이다. 낚싯줄은 보통 원줄과 목줄로 이루어진다. 원줄에 목줄을 연결하여 낚시를 매달게 된다. 예문 (23 ㄴ)을 보면, '저립낚시'는 원줄과 목줄 사이에 '알목'을 연결한다. '알목'은 원줄과 목줄 사이에 묶는 낚싯줄로, 원줄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낚싯줄이다. '원줄'의 방언형은 '원술'이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낚싯줄'을 '정수/정술'이라고도 한다. '정수/정술'은 '수지로 만들 낚싯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이름이다.

(1) 어종에 따른 명칭

● 갈치술

'갈치술'은 갈치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싯줄인데, '원줄'과 '아리', '낙시'로 이루어진다. '원줄'은 기다란 낚싯줄을 말하고, '아리'는 낚시를 매달기 위해서 원줄 중간 중간에 매단 줄이다.

(2) 재료에 따른 명칭

① 멘셋줄

'멘셋줄'은 면사를 이용해 만든 낚싯줄이다. '멘사+ㅅ+줄' 구성으로,

낚싯줄의 재료인 '멘세(면사)'에 '줄'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어휘다.

(24) 뽕돌에다가 바다 속으로 넣을 줄을 허면은 옛날에는 줄이 없으니까 멘셋줄. 멘셋줄 노꼿이엔 허영은에 두꺼운 거에 허영은에 피 멕영 밥솟듸 놩 치면은 그 피가 시커멍허고 뻣뻣허영 잘 미끄러지지 아녕 잘 뗑겨십주게.(봉돌에다가 바다 속으로 넣을 줄을 하면 옛날에는 줄이 없으니까 면삿줄. 면삿줄 노끈이라고 해서 두꺼운 것에 해서 피 먹여서 밥솥에 넣어서 찌면 그 피가 시커멓고 뻣뻣해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서 잘 당겼습지요.)<장영상>

예문 **(24)**를 보면, '멘셋줄'은 면삿줄에 돼지 피를 먹여 솥에 찌면 실이 질기고 뻣뻣해서 미끄러지지 않아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었다.

② 대구수줄

'대구수줄'은 '대구수+줄'의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다. '대구수'는 '수지'의 일종으로, 정확한 어원을 알 수는 없다.

(25) 방어 나끌 땐 대구수, 뽕돌. 낙시 뽕돌에 이제 메영은에 대구수줄 그것만 가졍 가면은 방어 나까시난.(방어 낚을 때는 '대구수', 봉돌. 낚시 봉돌에 이제 매서 '대구수줄' 그것만 가져서 가면 방어 낚았으니까.)<라여옥>

예문 **(25)**를 보면, '대구수'는 주로 '아리'로 쓰인다.

(3) 어로 방법에 따른 명칭

① 주낙줄

'주낙줄'은 '주낙'에 매달려 있는 낚싯줄이라는 의미다. 주낙줄은 '원줄'과 '아리'로 구성된다.

(26) ㄱ. 이것이 주낙줄이믄 혼 상자가 이백 발, 삼백 발 돼여. 혼 발가웃, 혼 발, 두 발 이 세 간격을 두어가지고 아리에다가 낙시를 메달아.(이것이 주낙줄이면 한 상자가 이백 발, 삼백 발 돼. 한 발가웃, 한 발, 두

발 이 세 간격을 둬가지고 아리에다가 낚시를 매달아.)<이보연>

ㄴ. 주낙 아리라고 이건 원줄인디 솔지기가 이만큼 솔지민 아리는 요렇게 끄늘지게. 여기 끄트머리에 낙시 메는 줄이 아리. 삼벡 발 원줄이고(주낙 아리라고 이것은 원줄인데 굵기가 이만큼 굵으면 아리는 요렇게 가늘지. 여기 끄트머리에 낚시 매는 줄이 아리. 삼백 발 원줄이고)<이보연>

예문 (26)은 '주낙줄'의 모양을 설명해 주고 있다. (26 ㄱ)은 '주낙줄'이 길이를 가늠케 하는데 '주낙줄'은 '한 발가웃' 정도의 길이다. '주낙줄'은 '주낙'의 긴 줄을 말하는데, 이 줄을 '원줄'이라고 한다. '원줄'에 매달아 낚시를 매다는 줄은 '아리'라고 한다. '아리'는 달리 '낚시아리' 또는 '주낙아리'라고도 하는데, 『청구영언』에 나오는 '아리'가 제주도방언의 낚싯줄 관련 어휘에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곧 '아리'는 '다리'의 옛말이다.

(27) 外骨內肉 兩目이 上天 前行後行 小 아리 八足 大 아리 二足 靑醬 ᄋᆞ스슥ᄒᆞᄂᆞᆫ 동난지이 사오(532번)[15]

'아리'는 (예문 27)의 '작은 다리(小 아리) 8개, 큰 다리 2개(大 아리)의 방게젓'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낙'의 '아리'는 낚싯줄에 다리처럼 연결해서 낚시를 매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아리'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목줄'이다. '아리'는 일본어 **'はりす(釣素)'**와의 연관성도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はりす(釣素)'**는 '① 목줄, ② 낚시 도구의 일종, ③낚싯봉 밑부터 바늘까지의 사이에 사용하는 실'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② ᄃᆞᆯ림술

'ᄃᆞᆯ림술'은 'ᄃᆞᆯ리-+ㅁ+술', '부끔술'은 '부끄-+음+술' 구성으로 이

---

15) 참고로 시조를 인용하면, "ᄃᆡᆨ들에 동난지이 사오 져 쟝스야 네 황후긔 무서시라 웨ᄂᆞᆫ다 사쟈 **外骨內肉兩目**이 **上天前行後行 小**아리 **八足 大**아리 **二足 靑醬** ᄋᆞ스슥ᄒᆞᄂᆞᆫ 동난지이 사오 쟝스야 하거복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ᄒᆞ렴은"과 같다(정주동 외, 『진본청구영언교주』, 신생문화사, 1957, 671쪽)

루어진 어휘다.

(28) ㄱ. 바람 좋을 때는 돗단베에다가 이제 돌림술. 돌림술 뿡돌 여러 개 막 달린 거 돌림술 헤가지고 갈치 나끄고(바람 좋을 때는 돛단배에다가 이제 '돌림술'. '돌림술' 봉돌 여러 개 막 달린 거 '돌림술' 해가지고 갈치 낚고)<라여옥>
ㄴ. 돌림술은 옛날에 풍선에 돗 돌아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허는 거고, 부끔술은 닷 줭 나끄는 거고('돌림술'은 옛날에 풍선에 돛 달아가지고 이제 나가면 하는 것이고, '부끔술'은 닻 줘서 낚는 것이고)<라여옥>

예문 (28)의 '돌림술'은 주낙의 원줄 곳곳에 달려 있어 배가 이동할 때마다 움직이며 고기를 잡는 주낙줄이다.

③ 부끔술

예문 (28 ㄴ)을 보면, '부끔술'은 한 곳에 닻을 준 다음에 한 곳에서 낚싯줄을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고기를 잡는 낚싯줄이다. '부끄다'는 '푸끄다'로도 실현되는데, 낚싯줄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4. 그물

'그물'은 노끈이나 실, 쇠줄 따위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게 얽은 물건으로 물고기 따위를 잡을 때 쓰는 도구다. 한자어로는 '어망'이라고 한다.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그물은 '웨접/웨폭/웨구물/웨망'이라고 하고, 두 겹으로 된 그물은 '이접', 세 겹으로 이루어진 그물은 '삼접구물, 삼폭구물, 삼마에, 삼중망'이라고 한다.

① 웨접/웨폭/웨구물/웨망

'웨접/웨폭/웨구물/웨망'은 한 겹으로만 이루어진 그물이다. '웨접'은 '외겹', '웨폭'은 '외폭'의 방언형이다. '웨구물'은 '웨-+구물', '웨망'은 '웨-+망(網)' 구성으로 한 겹으로만 이루어진 그물이다. '구물'은 '그물'

의 방언형이다.

② 이접

'이접'은 두 겹으로 된 그물을 말한다. '그물'이 생략된 형태다.

③ 삼접, 삼접구물, 삼폭구물, 삼마에/삼마에구물, 삼중망

'삼접구물, 삼폭구물, 삼마에, 삼중망'은 세 겹으로 이루어진 그물을 말한다. 고기잡이할 때 그물을 세 겹으로 하면 고기가 그물에 걸려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삼마에/삼마에구물'은 그물이 삼 매(枚)로 된 그물을 말한다. '마에'는 '매(枚)'의 일본어 '마이(まい)'가 '마에(まえ)'로 음변한 것이다. '삼중망'은 '삼중(三重)+망(網)' 구성의 한자어 명칭이다.

(29) ㄱ. 삼접 가운디 거는 속구물이라고 좀진 걸로 허고 바깟듸 사이에 강 끼문 이건 존 거고 지금 삼접구물 금지. 이접까지 허곡, 웨접구물 가정 허곡.('세겹' 가운데 것은 속그물이라고 가는 것으로 하고 바깥에 사이에 가서 끼우면 이것은 가는 것이고 지금 '세겹그물' 금지. 이겹까지 하고 외겹그물 가져서 하고.)<이보연>

ㄴ. 삼접구물 중간에 많이 나가지고 그걸로 궤기씨 막 몰랏주. 삼접구물 때문에 궤기씨가 막 몰랏젠 허여.('세겹그물' 중간에 많이 나가지고 그것으로 고기씨 마구 말랐지. 삼겹그물 때문에 고기씨가 매우 말랐다고 해.)<이보연>

ㄷ. 벤자리 옛날에 삼마에라고 삼폭, 삼폭구물이주게. 구물은 코가 좀질아도 것구물이 이만씩 커. 거 우알로 씌왕. 족은구물은 가운디 담고 안팟젓딜로 그 코에 뽕돌 무꺼근에 삼폭이주기.(벤자리 옛날에 세겹그물이라고 세폭. 세폭그물이지. 그물은 코가 가늘어도 겉그물이 이만큼씩 커. 거 위아래 씌워서. 작은그물은 가운데 담고 안팎으로 그 코에 봉돌 묶어서 세폭이지.)<차철의>

ㄹ. 삼마에구물도 헤봣고 삼중망.('세겹그물'도 해봤고 삼중망.)<강이근>

예문 (29 ㄱ, ㄴ)의 '삼접'은 '삼겹'의 구개음화한 형태이다. 예문 (29 ㄱ)의 '속그물'과 예문 (29 ㄷ)의 '족은구물'은 그물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물이고, '것구물'은 '속구물'을 안팎으로 감싸는 그물이다. '삼접구물/삼폭구물'은 『조선』의 '겹자망'16)의 방언형이다. 『조선』에는 '것그물'에

해당하는 '겉그물'[17]과 '속그물'[18]이 표제어로 올라 있다. 『표준』에는 '겹자망', '겉그물', '속그물'을 북한어로 소개하고 있다.

그물도 어종, 재료, 어로 방법에 따라서 그물 명칭이 분화해 나타난다.

(1) 어종에 따른 그물 명칭

어종에 따른 그물 명칭은 '어종명+구물'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① 다금바리구물, 갓돔구물, 도렝이구물, 벤자리그물, 돔그물, 셍선그물, 자리구물/자릿구물, 멜쿠물

(30) ㄱ. 이디서 다금바리구물이여 갓돔구물이여 이제 그추룩허멍 살앗겨게. (여기 '다금바리그물'이다 '감성돔그물'이다 이제 그처럼 하면서 살았지.)<차철의>

ㄴ. 엿날은 그 도렝이구물엔 허영이 찍노 꼬앙 줄을 솜앗덴 헤라.(옛날은 그 쿙이상어그물이라고 해서 짚노 꼬아서 줄을 삼았다고 하더라.)<차철의>

ㄷ. 벤자리구물도 잇고 돔구물도 잇고 뭐 셍선구물도 잇고.('벤자리그물'도 있고 '돔그물'도 있고 뭐 '옥돔그물'도 있고 뭐 '옥돔그물'도 있고.)<장영상>

ㄹ. 구물은 면사로 짠 구물 잇주게. 자리구물 짜야 뒈.(그물은 면사로 짠 그물 있지. '자리돔그물' 짜야 해.)<이보연>

예문 (30 ㄱ)의 '다금바리구물'은 다금바리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이고, '갓돔구물'은 '갓돔'을 잡을 때 사용한다. (30 ㄴ)의 '도렝이구물'

---

16) 『조선』의 '겹자망'의 뜻풀이를 보면, '두겹 또는 세겹으로 된 자망. 숭어, 잉어, 도미 등 날쌔고 빠른 물고기를 잡는데 흔히 쓰인다.'고 되어 있다.

17) '겉그물'은 '겹자망의 겉에 씌운 그물을 속그물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속그물보다 실의 굵기는 1.5~2배, 코의 크기는 3~7배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18) '속그물'은 '겹자망속에 있는 그물. 겉그물보다 처져서 주머니모양을 이룬다.'고 풀이하고 있다.

은 '도렝이' 즉 괭이상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이고, (30 ㄷ)의 '벤자리구물'은 '벤자리'를 잡을 때, '셍선구물'은 '옥돔'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이다. (30 ㄹ)의 '자리구물'은 '자리돔'을 잡을 때 이용하는 그물이다.

② 자ᄅᆡ사둘

'자리사둘'은 '자리+사둘' 구성으로, '자리돔을 잡을 때 사용하는 사둘'을 말한다. 사둘은 '손잡이가 길고 모양이 국자처럼 생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말한다.

(31) 자리사둘. 이치록헌 대에다가 족바지ᄀᆞ치 이렇게 둥글렁허게 그물. 그물이디 영 앞의 놧당 그걸 들렁 물러레 쑥 질렁 자리가 올라와 가믄 이렇게 들렁 좁아뎅경 올리주게. 이걸 국자사둘이라고 허여.('자리사둘'. 이처럼한 대에다가 '족바지'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그물. 그물 여기 이렇게 앞에 놓았다가 그것 들어서 물에 쑥 찔러서 자리돔이 올라와 가면 이렇게 들어서 잡아당겨서 올리지. 이것을 '국자사둘'이라고 해.)<이보연>

예문 (31)을 보면, '자리사둘'은 손잡이가 길고 모양이 국자처럼 생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어서 달리 '국자사둘'이라고도 한다. '자리사둘'은 보통 '뗏목'인 '테우'에 설치하여 자리돔을 뜰 때 이용한다.

(2) 재료에 따른 명칭

① 멘사구물, 찍구물, 나이롱구물

'멘사구물'은 '면사로 짠 그물'이고, '찍구물'은 짚으로 만든 그물, '나이롱그물'은 나일론으로 짠 그물이다. '재료+그물'이 합성된 구조이다.

② 원담, 원, 갯담

'원담'은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바닷가에 돌을 쌓아 만든 돌그물'이다. 지역에 따라 '원' 또는 '갯담'이라고도 한다. '원'은 '접(계)'을 꾸려 운영한다. '원담'은 '원(垣)+담', '갯담'은 '개+ㅅ+

담' 구성으로, 바닷가에 담을 둘러서 형성된 그물이라는 의미다.

(3) 모양에 따른 명칭

① ᄆᆞ루바리/마루바리, 요수바리

'ᄆᆞ루바리'는 둥그런 대 안에 그물을 연결해 만든 도구이고, '요수바리'는 네모나게 만든 그물로, 가파도에서 자리돔을 잡을 때 주로 이용했던 그물이다.

(32) 그 전에는 풍선으로 ᄆᆞ루바리라고 헤가지고 이렇게 둥그렇헌 대를 이렇게 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동선 하면서 김묘생이라는 분이 요수바리 어망 사각형으로 헤 가지고(그 전에는 풍선으로 '마루바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둥근 대를 이렇게 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라여옥>

예문 (32)의 'ᄆᆞ루바리'는 'ᄆᆞ루+바리' 구성으로, 'ᄆᆞ루'는 '원'을 의미하는 일본어 '마루(まる)'이고, '바리'는 '~을 치다'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 '하루(はる)'의 명사형 '하리(はり)'가 '마루'와 연결되며 '바리(ばり)'로 음이 변한 것이다. '원을 침'이라는 의미가 '둥그런 그물'의 뜻으로 의미가 전이된 경우다. 'ᄆᆞ루바리'는 '사둘'처럼 둥그렇게 만든 것인데, 가파도에서는 사둘대 없이 에움에 단 벼리를 들어 올려 자리돔을 잡았다.

'요수바리'는 '요쯔(よつ)'+'바리(ばり)' 구성으로, 배를 이용하여 자리돔을 뜰 때 발동선과 두 대의 '뗀마' 양쪽에 줄을 매어 바다에 깔고 올리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물로, 가파도 지역에서 고안한 '자릿그물'이다. '마루바리'와 '요수바리'는 그 모양을 따서 일본어로 붙인 이름이 방언형에 남아 있는 경우다.

② 국자사둘

앞의 예문 (33)에서 보듯, '국자사둘'은 '모양이 국자처럼 생긴 사둘'이라는 의미다. '국자사둘'은 '국자+사둘' 구성으로 이루어진 어휘다.

그물을 둘러싼 둥그런 나무는 '사둘에움'이라고 한다. '사둘에움'은 '사둘+에움'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인데, '에움'은 『동문유해』(상 36)의 **'院圈子** 터 에음'의 '에음'의 변이형태로, '둘레'의 옛말이다. '사둘 에움'은 주목(朱木)을 이용해 만들었다.

③ 도리산돌

'도리산돌'은 '도리+산돌' 구성으로, 둥근 모양의 사둘이라는 말이다. 구좌읍 하도리에서 '갯담'에 들어온 멸치를 뜰 때 사용했던 도구다. '도리'는 '둥근' 물건의 둘레'라는 의미이고, '산돌'은 '사둘'의 변이형태로 보인다. '둥근상'을 제주에서는 '도리상'이라고 하는 데서 '도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도리산돌'의 둘레는 왕대를 쪼개서 만들었다. 국어사전에 올림말로 올라있지 않은 어휘다.

(33) 우린 맞재비로만. 도리산돌은 헤보지 아녀고.(우리는 '맞재비'로만. '도리사둘'은 헤보지 않고)<손성추>

④ 통발

'통발'은 가는 댓조각이나 싸리, 그물 따위로 통같이 만든 그물이다.

(4) 어로 방법에 따른 명칭

① 후리

'후리'는 '강이나 바다에 넓게 둘러치고 여러 사람이 두 끝을 끌어당겨 물고기를 잡는 큰 그물'을 말한다. 주로 '멜(멸치)'을 잡을 때 이용하였다. 멸치잡이 방식인 '후리'가 그물 명칭이 된 경우다.

② 투망구물

'투망구물'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물속에 넣어서 치는 그물이라는 말이다. '투망+구물' 구성의 이 말은 표준어 '투망'에 해당하는 그물 이름으로, 한자어 '투망'에 '그물'이 중첩된 형태이다. 『표준』에는 '던짐그물'로 순화해 쓰도록 하고 있다.

(34) 고등어 잡는 어망인디 고등어 투망구물이렌 요만이헌 테왁덜 틔우멍도 잡곡이.(고등어 잡는 어망인데 고등어 '투망그물'이라고 요만큼한 '테왁'들 띄우면서도 잡고.)<차철의>

예문 **(34)**을 보면, '투망구물'은 비양도에서 주로 고등어를 잡을 때 사용하였다.

③ 자망구물

'자망구물'은 바다에서 물고기 떼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쳐 놓아 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이다.

(35) 백중사리만 이 자망구물도 벤자리 잡당 무슨 거 잡단 다 걷어 올려낫주기.(백중사리에만 이 자망그물도 벤자리 잡다가 무슨 거 잡다가 다 걷어 올렸었지.)<차철의>

예문 **(35)**의 '자망구물'은 '자망+구물' 구성으로, '투망구물'과 마찬가지로 한자어 '자망'에 '그물'이 중첩된 형태이다. 『표준』에는 '걸그물'로 순화하여 쓰도록 하고 있다. 이 그물은 보통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쳐두는데 물때가 가장 세다는 '백중사리'에는 이 그물을 걷어 올렸다고 한다.

④ 저인망

'저인망'은 바다 밑바닥으로 끌고 다니면서 깊은 바다 속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다. 『표준』에는 '저인망'을 '바닥 끌그물', '쓰레그물'로 순화해 쓰도록 하고 있다.

(36) 대개 봄에는 이 저인망을 저 구루찌, 돔, 우럭, 논젱이, 구문젱이, 다금바리 그런 것덜 이제 주로 잡고(대개 봄에는 이 저인망을 저 벵에돔, 돔, 우럭, 아홉동가리, 능성어, 다금바리 그런 것들 이제 주로 잡고)<라여옥>

예문 **(36)**을 보면, 저인망을 이용해서는 '돔, 우럭, 아홉동가리, 능성어, 다금바리' 따위를 잡았다.

⑤ 정치망/덤장/덤장구물

'정치망'은 한 곳에 쳐 놓고 고기떼가 지나가다가 걸리도록 한 그물을 말한다. 달리 '덤장' 또는 '자리구물'이라고 한다. '덤장구물'은 덤장에 쳐놓은 그물을 말한다. '그물'을 연결하여 그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37) ㄱ. 덤장은 고정된 장소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고기를 건져오는 곳이주게.(덤장은 고정된 장소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고기를 건져오는 곳이지.)<강영철>

ㄴ. 고기 유인허는 길 한 줄로만 헤영 질망, 질구물. 우리나라 말로 허통. 여기는 불통.(고기 유인하는 길 한 줄로만 해서 '길망', '길그물'. 우리나라 말로 허통. 여기는 '불통'.)<강영철>

예문 (37 ㄱ)을 보면, '덤장'은 '질망/질구물', '허통', '불통'으로 이루어졌다. '질망/질구물'은 표준어 '길'에 대응하는 방언형 '질'에 한자어 '망(網)'과 고유어 '구물'이 합성된 형태로, 고기떼를 이끄는 길이 되도록 치는 그물이다. '허통'은 '허(許)+통(通)' 구성으로, 길을 허락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어휘다. 표준어 '길그물'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불통'은 '허통'의 반의어로, 고기가 덤장에 쳐놓은 그물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막힌 그물을 말한다.

⑥ ᄀᆞᆯ상구물

'ᄀᆞ상구물'은 바닷가 가까이에 쳐놓은 그물을 말한다. 'ᄀᆞ상+구물'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로 'ᄀᆞ상'은 'ᄀᆞᆯ[邊]ㅅ+앙' 구조로, 여기에서 'ᄀᆞᆯ'은 '가장자리'의 의미이다.

(38) 도렝이는게 ᄀᆞ상구물 놩게 물싼 때 강 놔두민 들어가민 그 도렝이 왕 막 그물에 얽어져.(괭이상어는 'ᄀᆞ상구물' 놓아서 물쌜 때 가서 놔두면 들어가면 그 괭이상어 와서 마구 그물에 얽혀져.)<차철의>

예문 (38)의 '도렝이'는 표준어 '괭이상어'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이 예문을 통하여 괭이상어의 습성도 확인할 수 있다.

⑦ 맞재비

'맞재비'는 갯담에 들어온 멸치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물이다. 부채꼴 모양의 그물로 양쪽에 대를 붙여 만들어 양손을 이용하여 물속에 그물을 집어넣어 들어 올리면 멸치를 잡을 수 있다. 손잡이는 보통 왕대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맞잽이'는 '맞잡다'의 어간 '맞잡(잽)-'에 접미사 '-이'가 결합해 이루어진 파생어로, 양손을 이용하여 그물을 물속에 집어넣어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들어진 그물이어서 붙은 명칭이다.

(5) 기타

① 족바지, 족바리

'족바지'는 멸치나 그물에 걸린 고기를 뜰 때 사용하는 도구다. 기다란 손잡이가 달려 있어 멀리 있는 것도 뜰 수 있다. '족바리'라고도 한다. 표준어 '뜰채'에 대응하는 말이다.

② 구물찰리/자리찰리

'구물찰리'는 그물로 짠 자루라는 뜻이다. '테우'에 설치한 '사둘'로 뜬 자리돔을 담는 용도여서 '자리찰리'라고도 한다. '찰리'는 '자루'의 방언형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잘리'라고도 한다. '테우'를 이용하여 자리돔을 뜰 때 뜬 자리돔을 '테우'에 다 싣지 못하면 '자리찰리'에 담아서 바닷물에 띄워서 끌고 온다.

③ 구물막/구물살레

'구물막'은 '후릿구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지은 막이다. '구물+막(幕)' 구성으로 이루어진 어휘다. '구물막'은 '그물살레'라고도 한다. '그물+살레' 구성으로 그물을 넣는 살강이라는 의미다. '살레'는 '살강'의 방언형이다. '멜 후리'가 끝나면 '후릿구물'은 '구물막'에 보관한다.

(39) 그 당시 구물막 이거 하날 놈면은 물랑은에 아래 영 펭상 모냥으로 멘들앙 우의다가 동그랑허게 밥ᄀᆞ치 허영 여름에 집도 짓엉 방사탑 모냥으로 더껑 ᄂᆞ레미 더껑 허여낫주.(그 당시 '그물막' 이거 하나를 놓면 말라

서 아래 이렇게 평상 모양으로 만들어서 위에다가 동그랗게 밥같이 해서 여름에 집도 지어서 방사탑 모양으로 덮어서 이엉 덮어서 했었지.) <이보연>

예문 (39)를 보면, '구물막' 아래는 평상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말린 그물을 얹어 놓을 수 있게 하였다. 그물을 얹어 놓은 다음에는 젖지 않도록 그 위에 '노레미(이엉)'를 덮었음을 알 수 있다.

어로 도구 관련 명칭을 범주화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어로 도구 관련 어휘

상위 범주	하위 항목		어휘 항목
배	풍선/범선/돗단배/초석단배/초석배, 걸리젱이, 테우, 노젓는배, 뗀마, 동력선/발동선/모다배/기계선		
		어종에 따른 명칭	자릿배/자리뜨는배, 멜배, 갈칫배/갈치나끄는배, 고등엇배, 옥돔바리
		어로 방법에 따른 명칭	요수바릿배, 구물배/그물당선/당선, 권작선/께작선, 대구리배/고대구릿배, 나끔바리배/낙싯배, 덤장배, 주낫배, 불배
낚시	낙시/낙수, 주낙/주낫, 주낙시, 줄낙시, 마삭/섬비, 건장/건장낙시, 삼봉/삼봉낙시		
		어종에 따른 명칭	돔낙시/돔낙수, 갈치낙시/갈치낙수, 옥돔낙시, 고등에낙시, 벤자리낙시/벤자리낙수, 저럽낙시, 생성주낫, 돔주낫, 우럭주낫, 갈치마삭/갈치섬비, 고등에건장
		재료에 따른 명칭	벤세주낫/벤주낫, 수지주낫, 윤노리마삭
		어로 방법에 따른 명칭	무듬바리, 땅바리, 경심주낫, 뜸바리
낚싯줄	고기술/궤기술, 정수/정술, 주낙줄		
		어종에 따른 명칭	갈치술
		재료에 따른 명칭	벤셋줄, 대구수줄
		어로 방법에 따른 명칭	주낙줄, 돌림술, 부끔술
그물	웨접/웨폭/웨구물/웨망, 이접, 삼접/삼접구물/삼폭구물/삼마에/삼마에구물/삼중망		
		어종에 따른 명칭	다금바리구물, 갓돔구물, 도렝이구물, 벤자리구물, 돔구물, 생선구물, 자리구물/자릿구물, 멜쿠물, 자리사둘
		재료에 따른 명칭	벤사구물, 찍구물, 나이롱구물, 원담/원/겟담
		모양에 따른 명칭	무투바리/마투바리, 요수바리, 국자사둘, 도리산돌, 통발
		어로 방법에 따른 명칭	후리, 투망구물, 자망구물, 저인망, 정치망/덤장/덤장구물, 구상구물, 맞재비
	기타	족바지/족바리, 구물찰리/자리찰리, 구물막/구물살레	

Ⅲ. 어로 행위 관련 어휘

1. 낚시

① 나끄다, 나끔질, 주낙질

'나끄다'는 '낚시를 이용해서 고기를 낚다'는 뜻이다. 낚는 것은 낚싯대에 낚시를 매달아 낚는 경우도 있고, 줄낙시를 이용하여 낚기도 한다. 이를 두고 '나끄다'라고 하고, 낚는 행위를 두고는 '나끔질'이라고 한다.

(40) ㄱ. 방어는 겨울에 마라도 부근에 강 나끄곡. 여기서도 발동선 탕 강은에 저 호로로 허영은에 나끄기도 허고(방어는 겨울에 마라도 부근에 가서 낚고 여기서도 발동선 타서 가서 저 '호로'로 해서 낚기도 하고)<라여옥>
ㄴ. 셍성 나끄레 다니멍 죽을 고셍 멧 번 넘고(옥돔 낚으러 다니면서 죽을 고생 몇 번 넘기고)<차철의>
ㄷ. 베 웨줄로 나끄곡. 경 아녀민 주낙 헤영 나끄곡. 주낙질도 많이 해보곡 주낙질 허다가 안 뒈민 나끔질허다가 나끔질도 설러불곡.(배 외줄로 낚고 그렇게 않으면 주낙 해서 낚고 주낙질도 많이 해보고 주낙질 하다가 안 되면 낚음질하다가 낚음질도 그만둬버리고)<차철의>

예문 (40)을 보면, '낚싯줄'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을 때는 '~나끄다'와 연어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옥돔을 낚으면 '옥돔 나끄다', 방어를 낚으면 '방에 나끄다', 벤자리를 낚으면 '벤자리 나끄다', 갈치를 나끄면 '갈치 나끄다'처럼 표현하고 있다. 예문 (40 ㄷ)의 '주낙질'은 주낙을 이용해서 고기잡이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웨줄'은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낚싯줄을 말한다.

② 부끄다/푸끄다

'부끄다/푸끄다'는 낚싯줄을 위에서 밑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의 예문 (18 ㄴ)과 (19 ㄱ)에서 보듯이, 고기를 '부껑' 낚을 때는 배를 한 쪽에 세워서 닻을 두고 '갈치섬비'를 바다 속에 던져 놓고 낚싯줄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낚는다. '건장낙수'로 고등어를 낚을 때

도 마찬가지다.

③ 부치다/부찌다

'부치다'는 '갈고리가 세 개로 된 '삼봉낚시'에 오징어를 붙여서 잡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오징어 발은 빨판으로 되어 있어서 물체가 닿으면 흡착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런 습성을 이용한 어법이 '부치다'이다.

(41) 테우덜 그땐 자리 안 뜰 때난 <u>오징에도 부치곡</u> 경허당 여름 나민 자리 뜨는 거.(떼배들 그때는 자리 안 뜰 때니까 오징어도 붙이고 그렇게 하다가 여름이 되면 자리돔 뜨는 거.)<이보연>

예문 **(41)**의 '부치다/부찌다'는 오징어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시와 관련한 어휘다. '오징에 부찌다'를 표준어로 바꾸면 '오징어 붙이다'라는 의미다. 즉 '오징어'는 '부치다'와 연어 관계를 이룬다. '부치다'는 '부찌다' 형으로도 나타나는데, '부치다'와 '부찌다'는 표준어 '붙이다'의 방언형이다.

④ 걸리다

'걸리다'는 고등어 따위를 낚을 때 고등어가 낚시에 걸려 올라온다는 의미다.

(42) <u>고등어는 걸리는</u> 거 주장이고, 나끄는 건 고등어도 이녁 술로 허여. 고등어 술로.(고등어는 걸리는 것 주장이고, 낚는 것은 고등어도 이녁 살로 해서. 고등어 살로.)<이보연>

예문 **(42)**에서 보듯, 고등어를 잡을 때는 '낚시에 걸리게' 해서 잡는다. 고등어 낚시는 '건장'이라고 하는데, 이 낚시는 여러 개의 낚싯바늘로 되어 있어 고등어가 잡힐 때는 낚시에 걸려 올라온다. '고등에 걸리다'처럼 연어 관계를 이룬다.

2. 그물

① 후리, 구물칠, 후리다

'후리'는 후리그물을 이용하여 멸치 따위를 잡는 일을 말한다. '그물칠'은 그물을 이용하여 멸치 따위를 잡는 일을 뜻한다. 후리그물로 멸치는 잡는 일을 '멜후리'라고 하고, 멸치는 잡는 것을 '멜 후리다'라 한다.

(43) 구물칠도 많이 해보긴 헷주. 멜 잡는 후리 옛날은 헤낫주. 멜후리. 우리도 멜 후리레 하영 뎅겨낫주게.(그물질도 많이 해보긴 했지. 멸치 잡는 후리 옛날은 했었지. 멸치 후리. 우리도 멸치 후리러 많이 다녔었지.)<강이근>

예문 (43)의 '구물칠'은 '그물+-질' 구성으로, 'ㅎ'음이 삽입되어 거센소리화한 형태다.

② 뜨다, 거리다/게리다

'뜨다'는 '족바지(뜰채)'나 '사둘'로 자리돔이나 멸치 따위를 떠 올리는 것을 말한다.

(44) 자리 뜨는 건 ᄉᆞ월에서 구월ᄁᆞ지. 유월 칠월 팔월 이것이 큰 대목이고 늦으민 구월.(자리돔 뜨는 것은 사월에서 구월까지. 유월 칠월 팔월 이것이 큰 대목이고 늦으면 구월.)<이보연>

(45) 옛날이사 자리 거리레 하영 뎅겨낫주게.(옛날이야 자리 뜨러 많이 다녔었지.)<이보연>

예문 (44)를 보면, '뜨다'는 '거리다', '거리다'는 지역에 따라서 '게리다'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리돔을 잡아 올릴 때는 '자리 뜨다' 또는 '자리 거리다', 멸치를 '족바지' 따위로 떠 올릴 때는 '멜 뜨다/멜 거리다'처럼 연어 관계를 이룬다.

③ 털다

'털다'는 표준어 '떨다'의 의미다. 그물에 걸린 멸치 따위를 떨어낼

때 '멜 털다'처럼 표현한다.

(45) <u>멜 터는</u> 사름 뚜드령 때려주는 사름 일쿰도 줘야 헐 거.(멸치 떠는 사람 두들겨 때려주는 사람 품삯도 줘야 할 거.)<차철의>

예문 **(45)**를 보면, '멜 털다'는 그물에 걸린 멸치를 떨어내기 위해서는 그물을 막대 등으로 '뚜드령(두들겨서)' 멸치를 떨어내는 것을 말한다.

〈표 3〉 어로 행위 관련 어휘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낚시	나끄다, 나끔질, 주낙질, 부끄다/푸끄다, 부치다/부찌다, 걸리다
그물	후리, 구물질, 후리다, 뜨다/거리다(게리다), 털다

Ⅳ. 결론

이 글은 제주도방언의 어로 도구 관련 어휘를 고찰한 논문이다. 어로 도구를 배, 낚시, 낚싯줄, 그물 등 **4**개 범주로 나눈 후에 다시 어종, 재료, 기능, 모양이나 형태 등으로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어휘 의미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또 어로 행위 관련 어휘도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고기잡이할 때 사용하는 배는 풍선, '걸리젱이', '테우', '노젓는 베', '뗀마(전마)', '동력선' 등이다. 이들 배는 어종, 어로 방법에 따라 배 명칭이 다양하게 분화해 나타난다. 어종에 따라서는 '자릿베, 멜베, 갈칫베, 고등엇베, 옥돔바리' 등이 조사되었고, 어로 방법에 따라서는 '요수바랏베', '구물베', '권작선', '나끔바릿베', '덤장베' '주낙베', '불베' 등을 보고하였다.

둘째, 낚시 관련 어휘로는 '낙시/낙수', '주낙/주낫', '줄낙시', '마삭/섬비', '건장/건장낙시' '삼봉낙시' 등의 어휘를 고찰하였다. '낙수/낙시'도 어종, 재료, 어로 방법에 따라 낚시 명칭이 분화해 나타난다. 낚시 관련

명칭 가운데는 '마삭/섬비', '건장낙시'처럼 특이 어형과 '돔낙시, 벤자리낙시, 우럭주낫, 갈치마삭'처럼 어종에 따른 어형 변화도 확인하였다.

셋째, 낚싯줄도 어종, 재료, 어로 방법에 따라 어휘가 분화하고 있다. 낚싯줄 관련 어휘 가운데 '주낙줄', '돌림술', '부끔술'처럼 특이 어형도 보고하였다.

넷째, 그물과 관련해서는 '웨접', '이접', '삼접' 그물로 나눈 후에 어종, 모양, 어로 방법, 기타로 나눠 그물 명칭을 고찰하였다. 어종에 따른 그물로는 '다금바리구물, 갓돔구물, 도렝이구물, 벤자리구물. 자리사둘'처럼 어휘장이 확대되어 나타났고, 모양에 따라서도 'ᄆᆞ루바리, 요수바리, 국사사둘, 도리산돌'도 조사되었다.

다섯째, 이번 연구를 통해서 '갈치마삭', '갈치섬비', '초석단베', '맞재비', '도리산돌', '그물막' 등과 같은 전통 어로 활동에서 사용했던 도구 관련 독특한 어휘를 새롭게 학계에 보고할 수 있었다.

여섯째, 어로 도구와 어로 활동 관련 어휘 가운데는 일본어를 차용한 어휘가 많았다. '옥돔바리', '뜸바리', 'ᄆᆞ루바리' 등의 '바리'는 일본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다.

일곱째, 어로 행위와 어로 방법 관련 어휘 가운데 어종에 따라서 서술어 결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갈치는 '나끄다', 고등어는 '걸리다', 오징어는 '부찌다/부치다', '멜'은 '후리다', 자리와 '멜'은 '거리다'처럼 어종에 따라 서술어가 연어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어로 도구와 어로 활동과 관련한 어휘가 다양하게 분화되는 것처럼 어로 도구와 관련해서도 부분 명칭들이 발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잠녀들의 물질 작업과 관련한 어휘 조사와 연구로까지 확대하면 보다 다양한 어촌 생활 어휘가 학계에 보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강영봉, 『제주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고광민, 「제주도민구(Ⅱ)-제주도의 떼배와 그 어로행위들」, 『탐라문화』 제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고광민 편, 『어구』(제주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기획전 도록), 2002.

_____,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_____, 『제주의 생활사』, 도서출판 한그루, 2016.

김순자, 『해녀, 어부, 민속주-제주도의 민족생활어』, 글누림, 2009.

_____, 『제주수산물 방언자료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14.

김순자 외, 『민족 생활어 조사 보고서』 1,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2010.

_____, 『민족 생활어 조사 보고서』 5,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2011.

김순자 김보향 고범석,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Ⅲ(구좌읍편),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2015.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2002.

남광우 편,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1997.

북한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부, 1993.

정주동 외, 『진본청구영언교주』, 신생문화사, 1957.

제주도, 『제주의 민속(Ⅱ)』(생업기술·공예기술), 1994.

조선총독부농공상부, 『한국수산지』 3집, 1910.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1992.

현평효 외,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Abstract

Study on Words about fishing activities in Jeju Dialect
-Especially regarding fishing tools and how to fish

Kim, Soon-Ja*

The word forms regarding fishing tools which are used by local fishermen in Jeju Island - boats, fishing hooks and fishing gut, and the names of fish nets- and the way to fish are studied lexical semantically.

For this research, some words about fishing activities including fishing tools and the way to fish are recorded from 8 informants from 5 regions, Iho-dong, Jeju city, Biyang-Ri, Hanrim-eup, Obong-Ri, Udo-myeon, Gapa-Ri, Daejeong-eup, and Hado-Ri, Gujwa-eup for a year and the words are categorized and studied.

The following is the result.

First, some unique words describing traditional fishing tools like Galchimasak, Galchiseonbi, Choseokdanbe, Matjaebi, Dorisandol, and Geumulmak could be newly researched. These words are not in the Korean dictionary and this study could make Korean language culture valuable.

Second, more Sino-Korean words and Japanese are used to describe fish nets than native Korean.

Third, there are many words on fishing tools and the way to fish that have derived from Japanese like Okdombari, Tteumbari, Morubari.

---

* Lecturer,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suffix bari are from the Japanese without change.

Four, the words about fishing activities and the way to fish are us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fish species. For example, Galchi naggeuda, Godeungeo Geollida, Ojingeo bujjida/buchida, Mel hurida, and Jari georida.

Five, there are many partial names used to call fishing tools, which could make the research on words describing the culture of ocean villages more abundant through future studies on fishing operations of Jamnyeo, female divers.

* Key Words : Jeju dialect, Boat, Fishing, Fishing nets, Fishing tools, How to fish

교신: 김순자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 sj4765@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6. 08. 31.
심사완료일 2016. 10. 04.
게재확정일 2016. 10. 07.